

불자 세상보기



이채원 불교방송 사장

방송통신위원회는 탁상행정을 넘은 초헌법적 발상으로 미디어 시장의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더구나 불교방송을 민영법으로 지정하는 편향적 정책으로 불교계와 불교방송 임직원의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코바코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3년여의 진통 끝에 미디어법을 공영과 민영으로 분리하는 미디어법안을 통과시켰다.

미디어법 제 3장의 12조 1항은 광고 판매 대행사의 지정은 "방송사업자의 방송성격과 방송광고 매출 규모"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불교방송은 같은 종교 특수방송인 CBS, PBC와 같은 미디어법에 지정되어야 한다.

매출 규모면에서도 불교방송은 두 회사의 중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통위가 불교방송을 민영법으로 지정 한 것은 불교방송을 상업방송으로 규정 한 것과 다름 없다.

불교방송이 가진 종교방송의 특성을 완전히 무시한 방통위의 정책을 놓고 불교계가 "종교 편향적 정책"으로 규정 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방통위는 20여년간의 시장관행에 따

라 불교방송을 민영법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현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무시한 "초헌법적 발상"이다. 현재는 20여년간 이어져온 코바코 체제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된 바 있다. 그렇다면, 방통위는 현재의 결정에 따라 시장 특성에 맞도록 미디어법 체제를 새로 짜야 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종전의 관행만을 내세우며 불교방송의 민영법 지정을 합리화 하려하고 있다.

불교방송은 상업방송 아니다 CBS, PBS 등도 공영법에 편입 종교간 형평성 반영돼야



발언대

종교 차별 요소 다분

민영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방송들이 민영 미디어법에 포함되는 것은 심본이 해한다. 하지만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종교방송들은 공공영역의 공영 미디어법에 포함돼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기독교와 카톨릭 방송은 공영 미디어법에 포함되고 불교와 원불교는 민영으로 보낸 것은 누가 봐도 종교 차별적인 요소가 다분하다. 또한 법 정신에 애초에 부합하지 않는다.



주경 스님 조계종중앙총회위원장

같은 성격의 공공매체를 공영과 민영 나누는 기준 역시 공평하다.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이런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정치적 흐름이 파행을 몰고 온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종교방송 광고판매 방식에 있어서도 종교간 형평성과 공익성이 보장돼야 한다. 그래야 종교편향 등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이 없어진다.

방통위 적극 재검토 필요

방송은 어느 개인이나 소수단체의 소유가 아니고 사회적인 공공재다. 방송광고 판매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을 통해 관리 지원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SBS만 독자적으로 광고판매를 하도록 하는 이번 방통위 고시는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공익성을 생명으로 하고 있는 불교방송 원불교방송을 SBS와 묶어서 내보내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종단에서도 지난 7월 중순 방송통신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불교방송은 상업방송이 아닌 만큼 민영 미디어법보다는 공영 안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직후에는 청와대에도 의견을 전했다. 정부와 방통위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기대하고 있다.

차별 선정 의도 무엇인가

MB 정부가 출범한 이후 종교차별, 편향이 정부기관, 공공기관, 공직자, 교육기관 등 사회전반에서 수시로 자행되고 반복되고 있다. 올해 제정된 미디어법 때도 기독교와 천주교 방송은 공영방송으로 허가하고 불교방송과 원불교방송은 민영방송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심히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장

종교방송사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편성의 60% 이상을 선교나 포교 방송을 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갖고 있다. 즉 종교방송사는 공영적 성격이 강한 매체라는 것은 일반적 상식이다. 기본적인 법적 취지와 의무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상식적인 내용을 외면하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미디어법 선정 분류 시행 기준을 만들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社說

‘한국전통사상총서’ 영역 완간의 의미

2006년 12월 시작된 <한국전통사상총서>가 최근 영역(英譯)본 출간을 마지막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前조계종총무원장 故 지관 스님의 원력으로 시작된 이 대작불사는 한국불교 역경사에 큰 족적이다. 한 가지 주제의 불교 총서물이 한글·영역까지 완간된 것은 유례가 없기 때문이다.

고문으로 쓰여진 <한국불교전서>를 요약한 만큼 그 양도 방대하다. '권1 원효'로 시작하는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화엄, 제교, 공안집(1,2), 선이덕, 시선집, 계율, 비문집 등 총 13권으로 구성돼 있으며, 한글과 이번 영역본을 합치면 26권에 달한다.

'다시간 번역시스템'을 통한 교차 검토와 검증은 이번 총서가 가지는 특징이다. 그간 1~2인에 의존함으로써 이뤄지는 자의적 해석의 폐해를 확연히 줄였다. 교차 번역을 위해 8개 번역팀이 구성됐고, 23명의 세계 각국 불교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이를 보조하기 위한 연구원들도 23명이 참가해 귀중한 경험을 쌓았다.

이 같은 총서 완간은 학술적으로 여러 의미를 가진다. 사실 해외 불교학자들이 한국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려 해도 그 분야가 부족해 연구가 여의치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전통사상총서>는 해외 불교학자들에게 한국불교를 알리는 기초 학술자료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실제 총서의 한글본이 완역됐을 때 전세계 주요대학 313개 도서관들이 한국국립중앙도서관을 통해 배수를 요청했고, 영역본은 그 수요가 더 높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런 학술적 연구 토대는 조계종 33대 집행부의 주요사업인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이 분명하다. 현 집행부도 이 같은 대규모 역경 불사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 스님의 방대한 원력이 꽃을 피웠다. 이 향기를 이어가는 것은 이제 후학들의 몫이다.

노동위 발족 노동계에 큰 희망주길

불교계 최초로 조계종 산하에 노동위원회가 발족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8월 14일 부실장 간담회에서 '노동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령'을 최종 점검했다. 정리 해고와 열악한 노동 조건에 지친 노동자들을 감싸 안기 위해 불교계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 부친 것이다.

이번에 설치될 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쌍용자동차 노조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시발점이 됐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 용기를 주겠다는 게 주목적이다.

또한 힘없는 개인이 당한 억울함을 중단적 차원에서 함께 고민하며 해결해 나가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

타 종교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노동문제에 관심 갖는 것은 대사회적 인 차원에서 등을 두드려 줄만 하다. 대내외적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종령 기구

인 노동위원회는 조계종 자승과쇄신결사추진본부 산하 조직으로 운영된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종단 대사회 노동 관련 정책 자문' '노동 현안에 대한 화해와 조정' '노동 분야 종단 내 교육 자문' '노동 피해자 긴급 구호 자문'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고 한다.

솔직히 '노동 문제'는 그동안 불교계 사회참여 중 미흡했던 분야였다. 그래서 인지 종단 내 산하 기구로 위원회가 발족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다.

첫 시작이라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다. 앞으로 이 분야에 경험 많은 불교계 시민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하다. 노동계의 억울한 목소리에도 두 귀를 쫓긋 세워 귀를 기울여야 한다.

늦게 출발한 만큼 내실 있는 플랜을 세워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힘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Modern Buddhist Society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ddress, and website for 'Modern Buddhist Society'.

Advertisement for 'Zakdaigi Feng Shui' (작대기風水) featuring a book 'Zakdaigi Feng Shui' and a seminar 'Zakdaigi Feng Shui Seminar'.

Advertisement for '4 Books for Free'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featuring a book 'Zakdaigi Feng Shui' and a seminar 'Zakdaigi Feng Shui Seminar'.